

Comparison Study on Traditional Perceived Meaning of Color and Clothing Color of Korea and Japan

Eum, Jung-Sun* · Chae, Keum-Seok

Sookmyung Women's University^{*} · Sookmyung Women's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first, periodic changes of ideologies and beauty consciousness immanent in both countries are explored. Second, changes in the perceived meaning of color, which formed based on the beauty consciousness by times in both countries are explored. The results of examining the perceived meanings of color revealed in the culture, arts and clothing color of the both countries and comparing them depending on same period.

In the case of Korea, the perceived meaning of natural color with a focus on white and light colors representing the beauty of nature, the perceived meaning of variegated colors stressing the harmony between intermediate colors and original colors—which are represented by obangsaek, and the Buddhistic perceived meaning of gorgeous colors expressing the beauty of decoration during the period of Three States and Koryeo Dynasty. During the Joseon Dynasty, the perceived meaning of moderate and simple colors with a focus on white colors and light colors was added under the influence of Confucianism and silhak.

In the case of Japan, during the periods of Yayoi and Kofun the perceived meaning of color mainly featuring red colors during the periods of Nara and Asuka the perceived meaning of color featuring strong contrast. During the period of Heian the perceived meaning of elegant colors with a focus on intermediate colors and silver gray based on the aesthetic concept of miyabi prevailed. During the periods of Kamakura, Muromachi, and Momoyama, as wabi and sabi, the perceived meaning of achromatic colors featuring discoloration as if they had been worn-out and the perceived

meaning of color mainly featuring golden colors. During the period of Edo, based on sensual and urbanized iki, the perceived meaning of fashionable colors such as dark gray.

With regard to clothing color during the periods of Three States and Yayoi-Heian, which were ancient times, the use of variegated colors and complementary colors were common under the eumyang-o haeng and Buddhism. However, from the Heian during which cultural exchange decreased, Japan's original middle colors and intermediate colors began to be created. During the Koryeo Dynasty and the periods of Kamakura, Muromachi, and Momoyama, which were medieval times, the perceived meaning of color featured the use of gorgeous colors and golden colors mainly by controlling class. Traditional perceived meanings of color in both countries were established during the Joseon Dynasty and the period of Edo, which were early modern times. In the case of Joseon Dynasty, the high chroma colors were used for the official clothing color system and ladies and children of some classes. On the contrary, white and light colors—which represent natural color, were eminently used for most commoners' clothes. As jonin' culture, which based on iki beauty culture developed during the period of Edo, prevailing middle value and low chroma colors such as tea and dark gray emerged.

한국과 일본의 전통 색채관과 복색에 관한 비교연구

음정선* · 채금석

숙명여자대학교* · 숙명여자대학교

한국과 일본의 전통 색채관은 자연적 환경, 민족성, 풍습 등의 차이로 인하여 독창적으로 발전해왔다. 본 연구는 일본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한국 전통 색채관에 나타난 독자적 특성을 찾는 데 의의를 둔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색채관에 내재된 정신사상과 미의식의 시대적 변천을 고찰한다.

둘째, 양국의 시대적인 미의식을 바탕으로 형성된 색채관의 독자적 특성을 밝힌다.

셋째, 양국의 색채관이 각 예술, 문화와 전통 복식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살피고, 동시대에 양국 복식에 사용된 색채의 특성을 전통색표를 제시하며 비교 분석한다.

연구 범위는 시대적으로 양국의 고대에서 근세까지(약BC.1C-20C초)이며, 연구 대상은 양국의 회화, 공예품, 건축물의 장식, 복식유물로 한정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연구로는 양국의 미술사 등 국내의 문헌들과 선행 연구를 중심으로 하였으며, 실증연구는 양국의 문화, 예술, 복식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수행하였다. 또한, 한국 전통색표의 색채 측정은 Minolta CR-11의 색도계를 사용하였고, 측정값은 Munsell기호로 표기하였다.

연구 결과는 첫째, 한국의 색채관에 내재된 정신사상은 전시기에 나타난 음양오행, 자연주의와 고려시대에 성행한 불교, 조선시대에 중심이 된 유교, 실학을 들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화려미, 자연미, 장식미, 절제미, 소박미가 나타났다. 이에 비해, 일본은 불활론적 신앙, 음양오행, 불교, 선불교, 도교 등의 정신사상이 색채관 형성의 바탕이 되었다. 이를 통해 미야비 미의식, 와비, 사비 미의식, 이키 미의식이 나타났다.

둘째, 한국은 삼국시대와 고려시대에는 자연미로 대표되는 소색과 밝은 담색의 색채관, 화려미라 할 수 있는 오방색인 정색과 간색의 조화를 중요시한 다채로운 색채관, 장식미로 대표되는 불교의 화려한 색채관이 나타난다. 조선시

대에는 절제미와 소박미로 대표되는 유교와 실학의 영향으로 소색과 담색 중심의 색채관이 더해진다. 일본은 야요이-고분시대에는 주술적인 붉은색이 주를 이루는 색채관이 나타나며, 나라-아스카 시대에는 외래문화의 영향으로 강렬한 대비의 색채관이 나타난다. 헤이안 시대에는 미야비를 바탕으로 중색조와 은회색 중심의 우아한 귀족적 색채관이 나타난다. 무가시대에는 와비, 사비의 등장으로 낡은 듯 퇴색한 무채색의 색채관과 금색이 주조를 이루는 과시의 색채관이 나타난다. 에도시대에는 이키를 바탕으로 유녀나 배우를 중심으로 한 차색계와 쥐색계의 유행색의 색채관이 나타난다.

셋째, 고대인 삼국시대와 야요이-헤이안시대의 복색은 음양오행과 불교의 영향으로 양국 모두 다채로운 색채의 사용과 보색 대비가 공통적으로 나타나지만, 문화교류가 적어진 헤이안 시대부터는 일본 특유의 중색과 간색의 색채들이 등장하면서, 양국 색채관에 차이가 생긴다. 중세인 고려시대와 무가시대의 복색은 지배계층을 중심으로 한 화려한 색채와 금색 사용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고려시대는 일반적으로 백의를 선호한데 반하여, 무가시대의 서민복식은 지배층의 영향으로 다채로운 복색을 선호하였다. 근세인 조선시대와 에도시대는 양국의 전통 색채관이 확립되었다. 조선시대의 복색관계에는 고채도의 색채가 등장하는 반면, 대부분의 서민들의 복색에는 소색과 자연색의 고명도의 담색 사용이 나타났다. 에도시대에는 이키 미의식을 바탕으로 한 조된 문화의 발달로 중명도, 저채도의 차색계, 쥐색계의 유행색이 등장하였다. 일본의 색채관은 복합색과 중간색의 색채문화로 대표되는데 비해, 한국의 독자적 색채관은 전시대를 걸쳐 자연미와 화려미에 의한 색채관이 나타나며, 이에 표현된 색채들은 소색, 담색, 오방색의 단색으로 농담에 따라 다른 색채가 표현되는 순도 높은 색채들임을 알 수 있었다.